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기후·에너지 정책

◆ 칠레 탈탄소화 정책 수립 동향(주칠레대사관)

○ 칠레 에너지부는 11.8(금) 4개의 핵심축과 그에 따른 45개의 조치를 담은 탈탄소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하였음을 발표함.

- 동 정책은 2019년에 칠레 정부가 전력 기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및 전환을 최초로 합의한 이후 최근 1년 간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정책으로, 2030년까지 탈탄소화 정책 시행 완료를 목표로 하며, 동 정책은 의견 수렴을 통해 2025.1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

○ 동 정책이 담고 있는 4개의 핵심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.

- (첫 번째 축) 국가 단위의 탈탄소화 에너지 프로젝트 수립이 시급함에 따라 △칠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하는 발전사에 세금 감면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△에너지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탈탄소화 정책 가속화 등 포함
- (두 번째 축)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송전망 현대화에 대한 축으로 송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해 비용 측면의 효율성을 고려한 12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
- (세 번째 축)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시스템 운용에 대한 축으로 기존 PMGD(중소규모 발전사업자)의 발전량에 대한 국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, 동시에 전력 수요-공급 예측을 통해 향후 중기적으로 천연가스를 통한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
- (네 번째 축)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수요 촉진 및 장기적인 시장 형성을 초점으로 △소비자를 고려한 전력 공급 경쟁 형성 △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시장 현대화 △탈탄소화를 장려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강화 등을 포함

◆ 아제르바이잔, 녹색 분류체계(Green Taxonomy) 승인(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)

○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관리위원회는 11.13(수) 녹색 분류체계(Green Taxonomy)를 승인했으며, 이는 경제 부문 전반에서 녹색 활동의 유형과 세부 유형, 기술적 분류 기준을 정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며 경제의 녹색 전환 및 지속 가능성 향상에 중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.

- 주로 금융기관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사업 활동이 해당 분류체계의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, 녹색 및 지속 가능한 전환 전략을 개발하며,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녹색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
- 기대효과로는 △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 △국내외 자원을 녹색 및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효율적으로 배분 △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 △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기회 활용 △재화와 서비스 수출에 특화된 기업 지원. 끝.

외교부 기후변화외교과 T. 02-2100-8474(8475)
(기후에너지협력센터) E. cecc@mofa.go.kr